혁명일화로 보는 렬사복무의 려정

주체112(2023)년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차 례

혁명일화의 갈피를 펼치며

평범한 인간들의 생활에도 일화가 있고 위인에게도 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거창한 생활의 본질이 집약되여있으면서도 생동하고 흥미있는 일화들은 세월이 가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인간에 대해서 특히 위인에 대해 말할 때 부피두터운 력사책이나 기념비보다 먼저 일화를 떠올리는것이다.

위인들의 일화에는 그들의 리념과 풍모, 성격과 정서 등이 반영된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력사의 갈피에 새겨진 례사로운 위인일화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혁명일화에 대하여 전하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습니다.》

다 합치면 두터운 장편실록이 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일화들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것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일화들이다.

멸사복무!

불러만 보아도 가슴이 젖어드는 이 부름은 바로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신성히 여기시며 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인민관의 분출이고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창조와 건설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관은 참으로 특출하시다. 조선인민을 세상에 없는 위대한 인민이라고 하시며 조선말어휘표현이 다양하지만 우리 인민을 위대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절절히 토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인민관은 이 땅우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세상을 펼쳐올리는 근본원천으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일화들을 낳게 하는 비옥한 토양으로 되고있다.

최우선, 절대시!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일화들에서 안아보게 되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문제가 놓여있다. 인민이 바라는것은 설사 저 하늘의 별이라고 해도 따와야 하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보다 더 중차대한것은 없다는것을 생동한 사실로 펼쳐보이는 혁명일화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인민관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최우선, 절대시라는 말과 함께 꽃펴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혁명일화들을 일일이 다 적자면 끝이 없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은 참으로 뜨겁다. 그것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인민, 지어 외진 섬, 깊은 산골마을의 마지막 한사람까지도 다 품어안으시고 사랑과 정을 주시는 위대한 사랑이다.

상처입은 사람, 마음속아픔을 안고있는 사람일수록 더 따뜻이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분, 멀고 외진 곳에 사는 인민일수록 더 마음쓰시며 돌봐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 품속에서 조선인민이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 그 어느 하늘아래서도 찾아볼수 없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높은것이다.

그러면 위대한 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혁명일화로 펼쳐보인다.

깊이 새겨주신 인민관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다

주체 104(2015)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였으면, 얼마나 하늘처럼 중히 여기시였으면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그토록 뜨겁게 불러주시랴.

일군은 숭고한 그 부름을 다시금 외워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거기에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인민을 위해 일군들이 멸사복무의 자욱을 끝없이 새겨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라

주체 101(2012)년 4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모두가 좌우명으로 간직해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깊은 감동으로 가슴을 들먹이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근본사명으로 내세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기에 언제인가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한 시계가 한동안 멎어있은 사실을 두시고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리용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시계가 멎은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일군들의 심장이 멎은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어려있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라!

자자구구 새길수록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어려와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언제인가 진행된 만경대유희장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 현지지도였다.

그날 유희장구내를 거니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로가 심히 깨지고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난것을 보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고 한포기한포기 풀을 뽑으시며 일군들의 눈에는 이런것이 보이지 않는가고 질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과 관리성원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령이 아니라

그 이하이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계속하시여 만경대유희장의 현실태는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간직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당의 의도를 잘 받들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해 어떻게 뛰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깨우쳐주었다.

다음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당일군들이 인민관을 바로가지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과 한전호에서 싸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숭엄해지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말씀에 담겨진 심원한 뜻을 심장에 새기였다.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참된 일군,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기대가 어리여있었다.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야 한다

주체 101(2012)년 4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참으로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처럼 우리 당을 사람들의 운명도 미래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가르치심이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도 초급당위원장들은 당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철학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신 위대한 인민을 위해 자기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당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어느해 2 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2 차 초급당비서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초급당비서들이 진정한 어머니심정으로, 성실한 심부름군의 자세로 인민을 받들고 섬기며 당의 인민적정책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것이 이번 초급당비서대회의 기본정신, 기본사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어머니심정, 심부름군의 자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겨안으며 대회참가자들은 그

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 멸사복무의 의지를 다시금 폐부로 절감하였다.

목숨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지금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 부름속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화원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위인세계가 집약되여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 커다란 진폭으로 메아리쳐온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따르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인민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깊은 그 말씀.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심부름군당으로 만드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건설사상, 당건설리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이제 우리 당은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불러주는 자기 인민의 위대한 믿음에 목숨걸고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우리 당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 아니랴.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

이 부름과 더불어 조선인민은 확신하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날 사회주의락원의 찬란한 래일을.

장군님을 모시듯이

주체 101(2012)년 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은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인민은 하늘이고 스승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을 정히 받들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순간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는 철리를 새겨준 귀중한 지침이였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

그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자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준 뜻깊은 가르심

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고 지향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언제나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모든것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주체 103(2014)년 10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현지에 나오시였다.

1호승강기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승강기가 몇대인가를 물으시였다.

한개 현관에 2대가 설치되여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승강기예비부속품들도 미리 갖추어 놓고 관리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승강기가 고장나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내리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윽고 승강기를 타시고 5층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강기의 바닥과 복도면의 차이를 눈여겨 가늠하시다가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보니 복도바닥면보다 약간 처지는데 교정을 잘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승강기바닥과 복도면과의 차이, 그것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는 약간한 높낮이차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였다. 인민을 위한 모든 일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놓아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팀없는 신조와 높은 요구성에 비하여 너무도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자신들의 복무정신의 차이였던것이다.

《비슷하게》, 《이쯤하면》 하는 식의 일본새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으시며 가장 완벽한것만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새길수록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부록 1】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인민에 대한 숭고한 관점과 립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관점이며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복무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인민적수령의 성스러운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고 선생이였으며 혁명의 주인이고 기적의 창조자였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인민대중이며 《위대한》이라는 호칭으로 부를수 있는 인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 인민이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였다.

진정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관이다.

바로 여기에 인민을 대하는 조선로동당의 관점과 립장이 어떤 숭고한 경지에 이르고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있다.

【부록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닐데 대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데 대하여》

… … …

【부록 3】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된 력사적인 회의들

제 1 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조선로동당 제 4 차 세포비서대회

조선로동당 제 5 차 세포위원장대회

… … …

숭고한 헌신의 세계

사랑의 글발

주체 103(2014)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집무탁우에는 인민들의 생활의 단면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생선국을 마주하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는 아이들, 앞을 다투어 물고기들을 날라가며 설레이는 과학자가족들 …

기쁨에 겨워 웃고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벅차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한자한자 사랑의 글발을 써나가시였다.

멸사복무!

바로 여기에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다.

이런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이 터치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 것이다.

7월의 하루가 전하는 위대한 헌신의 세계

주체 102(2013)년 7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침일찍 어느한 건설장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전날 자정이 가까와오는 깊은 밤 일군들에게 다음날 아침부터 은하과학자거리건설장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건설장에 대한 지도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그이이시였다.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얼마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미 계획하였던 대상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마치고 진행할 일정에 대해 또다시 알려주시였던것이다. 결국 그이께서는 다른 대상에 대한 현지지도를 더 하시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대상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릴수 있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낮에는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고 밤에는 또 렬차에서 집무를 보시며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시였다. 그런데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오히려 강행군속도를 더욱 높이며 헌신의 길을 재촉하시니 일군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루하루, 정녕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무한한 헌신의 하루하루이다.

달라진 시운전시간

조선인민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기 며칠전이였다.

이날 전화로 한 일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시운전이 어떻게 되여가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에서 하고있는 지하전동차에 대한 시운전이 잘되고있으면 좋다고 하시면서 래일 자신께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타보려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바로 전날에도 친히 전화를 걸어 지하전동차가 운행하는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지하철도운영시간가운데서 그중 조용한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지하철도운영시간이 끝난 다음 밤에 지하전동차를 타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주체104(2015)년 11월 19일 인민들이 다 쉬는 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지하전동차의 시운전이 진행되게 되였다.

진정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언제나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깊은 밤 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기신것 아니랴.

인민을 위해 깊은 밤에 진행된 지하전동차시운전,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령도사에 새겨진 하나의 자그마한 일화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조선에는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것이다.

45 층의 바람소리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이야기이다.

그날 초고층살림집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지막층인 45 층에 오르시였다.

어느한 집에 들리시여 내부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베란다창문가에 다가서시여 창문을 여시고 창전거리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 창문을 닫으려 하실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닫겨진 창문손잡이에서 손을 떼지 않으신채 귀를 기울이시는듯 하시더니 문짝들에 손을 대보시며 베란다창문의 어디에선가 바람이 새여드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람소리가 나는 원인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그 대책적방도를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창문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면 겨울에는 춥고 방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잠을 잘수 없다고 일깨워주시며 창문들에서 바람이 새는 결함을 퇴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5 층의 다른 집들을 돌아보시면서도 바람소리를 가늠해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날 다른 호동에 가시여서도 높은 층의 베란다에서 바람소리부터 가늠해보시였다.

그 한점의 바람소리에서 인민들이 느끼게 될 불편을 헤아려보시였기에 어느한 살림집을 돌아보실 때에는 벽면의 미세한 차이를 가려보시고 해당한 대책도 취하도록 하시였다.

건설자들은 즉시에 달라붙어 베란다창문으로 바람이 새여드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알게 된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45 층의 그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주인들의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창전거리의 초고층살림집창가마다에서 이제는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사연깊은 이야기는 조선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여 경애하는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오늘도 깊이 새겨주고있다.

인민사랑의 명당자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함경북도사업을 정력적으로 현지지도하시던 어느해 7 월이였다. 그날 경성군에 자리잡은 비행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하기에는 정말 명당자리라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정수리를 태운다는 여름날 정오의 따가운 해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비행장이 넓고 땅도 비옥하다고, 이런 광활한 옥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격정속에 우러르는 수행성원들가운데는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일군도 있었다.

(명당자리!)하고 속으로 외워보는 그의 뇌리에 며칠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고있었다. 어랑천 5 호발전소를 돌아보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경성군에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을 통해 비행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현듯 책임일군에게 거기에 온실농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과 군용비행장을 두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기에게 물으시는 바람에 그는 어리둥절하여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도당위원장이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라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더니 이미 있던 비행장을 내고 그 자리에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된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경북도인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고 다시금 정깊이 물으시는것이였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함경북도는 북부해양성기후인것으로 하여 다른 지대보다 남새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도의 전반사업을 책임진 그의 마음속에는 청진시를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풍족하게 먹이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묵직이 매달려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하다한들 군용비행장에 온실농장을 건설할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그때의 놀라움은 그의 마음속에 풀수 없는 의문으로 남았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현지에 오게 된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푸른 하늘아래 아득히 펼쳐진 비행장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함경북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오다가 여기 비행장을 내고 현대적인 대규모온실농장을 꾸릴 결심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함경북도인민들의 남새문제가 풀리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일을 찾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도당책임일군은 그이께서 며칠전 이 비행장의 면적을 알아보시면서 거기에 온실농장을 건설하는것이 어떻겠는가 물으시고 또 지금은 비행장을 직접 돌아보시며 대규모온실농장의 명당자리라고 기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였다.

인민, 바로 인민때문이였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인민에 대한 지극한 사

랑으로 언제나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기에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리시고 조국보위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장도 통채로 내여주시는것이 아니랴.

땅속에서 솟아나는 《꿀물》

어느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지구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도가 80℃나 되는 뜨거운 물이 더운 김을 피워올리며 콸콸 솟구치는 용출구를 보시면서 그 무슨 보석이라도 찾으신듯, 쌓이신 피로가 다 가셔진듯 환하게 웃으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위해 높낮은 산발들과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양덕군 온정리일대의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면서 온천의 용출량과 주변환경을 직접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처럼 바라시던 용출구를 찾으시였으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이 과연 어떠하시였으랴.

심중에 차넘치는 기쁨이 그리도 크시여 용출량과 온도까지 직접 확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0℃나 되는 뜨거운 온천수의 물맛까지 보시고 이 물은 정말 꿀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꿀물!

인민들에게 덕을 주고 기쁨을 안겨줄 온천수가 얼마나 소중하시였으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꿀물에 비기시였으랴.

직접 타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마음속에 인민을 안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고 완벽한것만을 안겨줄것인가 하는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가신다.

그것이 크든작든 인민들을 위한것이라면 언제나 자신께서 먼저 료해하시고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그리도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같은 사랑속에 조선에는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오늘도 조선인민이 격정속에 되새겨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별들도 잠든 깊은 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위하여 몸소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여주시였다.

며칠전에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겉모양만 보아서는 그 성능이 어떤지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타고다닐 무궤도전차인데 직접 타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다고 하시면서 몸소 시운전현장에 나오시였던것이다.

잊지 못할 그날의 시운전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무궤도전차의 크지 않은 소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인민들이 느낄수 있는 자그마한 불편까지 헤아려주시였다. 이제 전차를 리용하게 될 인민들의 심정에서, 인민들의 립장에서 의자에도 앉아보시며 부족한것이 없는가 거듭 살펴보시였다.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던가.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자그마한 흠도, 티끌만한 결함도 없는 완전무결한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신조였다.

단 하나의 부족점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것으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헌신의 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 뜨거운 진정이 차넘치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준공을 하루 앞둔 양덕온천문화휴

양지를 또다시 찾아주신 그날에도 삭도에 오르시며 인민들은 자신께서 삭도를 타고 올라갔다는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을 놓을수 있다고 하시였던것이다.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였기에, 인민의 행복과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사시기에 그것이 비록 완전무결한것이라 해도 자신께서 직접 보지 않으시고는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 땅에 일떠서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마다에는 아직 채 완성되지 않은 계단을 따라 몸소 아찔하게 높은 물미끄럼대의 정점에까지 올라가시여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물놀이시설의 안전상태를 직접 확인하신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희기구를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한다시며 몸소 유희기구에 오르신 사실도 새겨져있다.

미루어진 축하전문전달식

주체 105(2016)년 1월 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커다란 생산적성과를 이룩한데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전해에 이곳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국해방 70돐과 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낮과 밤이 따로없는 돌격전을 벌려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안고 혁신창조의 날과 달을 이어온 상원로동계급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담아 문건에 높이 평가한다는 뜻깊은 친필을 새기시였다.

다음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당과 국가의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멘트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축하전문이나 축하문을 보내주려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눈굽이 달아올랐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나래치는 거창한 창조의 숨결을 안아보실 때에도, 온 나라를 새로운 창조대전에로 불러일으키실 때에도 상원로동계급을 먼저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다.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전문전달식을 그들이 휴식하는 일요일에 진행하지 말고 다음날에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순간 이름할수 없는 흥분이 일군들의 온몸을 휩싸안았다.

근로자들의 일요일휴식을 위해 깊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진정이 가슴후덥게 어려와서였다.

이렇게 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상원로동계급에게 보내주신 축하전문전달식은 하루 미루어 진행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전문과 거기에 깃든 사연을 전해들으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북받치는 격정으로 하여 눈물의 동을 터치였다.

정녕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의 한없이 웅심깊고도 다심한 사랑이 낳은 또 하나의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조선의 로동계급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여주는 뚜렷한 대답이였다.

손수 그려주신 그림

언제인가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물놀이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탈의실에 들어서시여 한동안 내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탈의실에는 사람들이 양말을 신을수 있는 긴의자도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탈의실가운데 놓을 옷걸이가 달린 의자를 그려주겠다고 하시면서 한 일군에게서 수첩과 필기도구를 받아드시였다.

손수 수첩에 그림까지 그리시며 이렇게 옷걸이가 달린 량면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양말도 신을수 있고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수 있기때문에 편리할뿐 아니라 탈의실의 면적리용률도 높일수 있을것이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하나의 창조물을 대하시여도 인민의 편의부터 생각하시며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끝없는 사랑을 기울이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그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손수 그려주신 그림은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은 하나를 해도 손색없이 해야 하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귀중한 철리를 새겨주었다.

몸소 밀어보신 밀차

언제인가 미래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료매대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갖가지 과자, 사탕, 빵을 비롯한 당과류들이 가득 쌓여있는 진렬장들, 매대앞에 놓여있는 손님용밀차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동안 매대를 둘러보시다가 문득 밀차 한 대를 가지고 매대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일군들은 의아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눅잦혀주시려는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도 과자를 밀차에 담아가지고 가겠다고 유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좌중에는 흥그러운 웃음꽃이 피여났다. 그러나 다음순간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찌하여 밀차를 밀어보시였는지 그 의도를 깨달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매대를 리용하는 손님들이 밀차에 상품을 담아가지고 오갈 때 불편하지 않겠는가를 가늠해보시려 몸소 밀차까지 밀어보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113건의 형성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이 준공을 앞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수물놀이장에 또다시 나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 인민의 꿈이 또 하나 현실로 꽃펴나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앞에 문수벌이 좁다하게 거대한 물놀이장의 전경이 황홀하게 펼쳐졌다.

구불구불 뻗어간 여러가지 색갈의 물미끄럼대들이며 형형색색의 수조들, 조약대, 인공폭포와 묘향산,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바위산, 금시 살아 뛰여다닐것만 같은 동물조각들…

물놀이장의 구내를 걷고 또 걸으시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이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터져오르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이런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울이신 심혈의 세계 그 얼마였던가.

문득 일군들의 눈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그날 미림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며칠전까지 보아주신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이 109 건이였는데 오늘 4 건을 또 보아주었으니 113 건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모두가 놀랐다.

－113 건이라니? 어느새 벌써? …

113 건의 물놀이장형성안,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휴식일에도 명절날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시였다.

설계일군들이 아무리 사색을 모아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형성안에 만족이 없으시였고 번마다 새로운 착상을 더 넣어주군 하시였다. 때없이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장시간에 걸쳐 돌아보시고는 또 형성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군 하시였다.

그렇게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해도 113 건이였으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수물놀이장에 바치신 로고의 세계를 어떻게 다 계산할수 있으랴.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성대히 경축한 후인 10월 15일,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성대한 준공식이 있었다. 사람들은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꼭 나오실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준공테프를 끊은것은 인민이였다.

【부록 4】

멸사복무

멸사복무란 말그대로 자신을 깡그리 바쳐 이바지한다는것이다. 인민을 위해 생명을 내건 이런 복무는 인류력사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라!

이것은 오랜 세월 온갖 굴욕과 치욕을 숙명으로 감수하며 착취계급의 노예로, 망국노로 살아온 우리 인민을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존재로 떠받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은 인민에게 호령하고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될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인민에 대한 복무의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더욱 굳건히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 앞장에 서계시였다.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는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0 월 10 일 조선로동당창건 70 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력사의 전철기를 쥐고있기에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

에서 우리 당이 장장 70 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갑시다!》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그 존재방식으로 되고있는 멸사복무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인민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불멸의 시대어로 길이 빛날것이다.

【부록 5】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 101(2012)년 4 월 6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담화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 4 차 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이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이라는것은 우리 당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혁명적당이

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력사가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활동력사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열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불러일으켜 이 땅우에 주체로 존엄높은 강위력한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적로정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과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이기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전반구성과 내용은 인민대중중시의 관점과 립장,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일관되여있다.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적인 견해,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의 원리, 인민대중의 리익을 기본으로 내세울데 대한 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으로 된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에 의하여 인민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으며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부록 6】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이다.

인민의 세상인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는 마땅히 인민을 위한 정치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를 요구하는것도 인민이고 사회주의의 기초도 인민이며 사회주의의 전진동력도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이다. 인민을 중시하는 정치, 인민에게 의거하는 정치, 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면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하여왔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구현되였기에 조선인민은 당의 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사소한 변심을 몰랐으며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여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이 가장 간고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는 과정에 확증한 귀중한 철리이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열백번 달라져도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로동신문 2022/06/05)

최우선, 절대시!

식사칸에서 주신 가르치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일군들에게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관점과 립장을 가슴깊이 새겨주시였다.

언제인가 완공을 앞둔 한 거리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식당의 식사칸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한 의자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도 어서 앉아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일군들은 의아한 심정을 안고 의자에 앉아보고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였다. 의자등받이가 직선으로 되여있다보니 불편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려면 직각으로 앉아야 하는데 그렇게 앉아 어떻게 밥을 편안히 먹을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이런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되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식당의자를 앉기 편안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을 잠시 둘러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바뀌여진 바닥타일

주체 107(2018)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으시였다.

물우에 떠있는 배를 형상하여 특색있게 건설된 식당의 1 층에는 고급 어족들과 조개류들이 욱실거리는 커다란 실내못들과 낚시터 등이 꾸려져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 1 층의 전경이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실내못들이 꽉 들어찼는데 마음이 흐뭇하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식당안의 이채로운 전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그때 경애하는 그이께서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을 세심히 살펴보고계시는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깔아놓은 타일을 보시면서 이런데는 봉사과정에 물이 떨어져 미끄러울수 있으므로 실내용보도블로크를 물매지게 깔아주어 물이 인차 빠질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쩌릿해났다. 그때까지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옥에 티가 아니였던가.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그렇듯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후 실내못들의 주변바닥에 깔았던 타일은 실내용보도블로크로 바뀌여지게 되였다.

평가의 기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데로 철저히 지향시

켜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고계신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작업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공장일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생산된 제품들을 가리켜드리며 이 식료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들의 평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인민의 평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언제나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으시고 그것을 모든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은 크나큰 메아리가 되여 끝없이 울리며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었다.

가장 엄격한 검열원, 심사원은 인민이다.

인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

깨우쳐주신 문제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류경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아직은 란간도 완성되여있지 않는 건설장의 계단을 오르내리시며 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기시였다.

건설중에 있는 대중목욕탕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욕조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욕조안에 걸터앉을수 있게 만들어놓은 턱을 유심히 살펴보

시였다.

동행한 일군들도 그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일군들의 눈에는 이렇다할 부족점이 띄우지 않았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 욕조턱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되여있는데 인민들이 상처를 입을수 있으므로 모서리부분을 원활하게 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곳을 찾게 될 사람들의 심정에서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관심하시며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어린 말씀이였다.

그후 류경원의 욕조턱은 원활하게 고쳐지였으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런 불편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였다.

감동깊은 이 이야기는 오늘도 새겨주고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립장에서 보고 대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사용설명서에 깃든 사연

주체102(2013)년 6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닐로 포장한 가루된장이라고 쓴 제품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의 일군에게 사용방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며 한동안 상품을 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상품에는 사용설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은 그이께서 사용방법에 대하여 물으신 의도를 깨달을수 있었다.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인민을 위한 일은 그 무엇이든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당부가 어려있었다.

옮겨진 편의봉사시설과 레드전광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중심도로의 한복판에 서시여 거리전반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본도로를 따라 배치되여있는 편의봉사시설들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고층살림집들의 뒤에 편의봉사시설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고층살림집들의 뒤에는 편의봉사시설을 배치하지 않고 모두 거리에서 보이는 기단층에 배치하였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럴것이라고, 기본도로량옆에 있는 고층살림집들의 뒤에 약국이나 세탁소같은것이 없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지구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무엇을 사려고 하거나 빨래같은것을 하려고 하여도 기본도로에까지 나와야 할것이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은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새 거리에서 살게 될 주인들이 느끼게 될 불편에 대하여 미처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는 그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계일군들이 기본도로량옆에 급양,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의 간판이 울긋불긋하게 많이 있어야 현란해보이고 번쩍번쩍해보이겠으니 그렇게 하였을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0 층고층살림집옆의 독립봉사건물바깥벽의 레드전광판을 가리키시며 그것도 걸보기에 좋게 하자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원래 레드전광판같은것은 살림집구획안의 큰 공원이나 상업망이 집중되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도시건설에서 국가의 권위를 제고하고 얼굴을 살리는데만 신경을 쓰고 실지 건축자체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도식적인 틀에 매달려 지난 시기의 도시건설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도시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렇게 되여 송화거리에는 편의봉사시설과 레드전광판이 다시 배치되게 되였다.

옮겨진 편의봉사시설과 레드전광판,

못잊을 이 이야기는 모든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해나가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새겨주었다.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내부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창전해맞이식당을 돌아보실 때 있은 일이다.

2 층을 돌아보시기 위해 계단으로 향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승강기가 설치되여있는것을 보시고 저으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비록 층수는 높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해놓은것이 못내 기쁘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늙은이들과 영예군인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한것은 잘하였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것을 따져보고 실리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길지 않은 이 말씀에는 사회주의조선에 태여나는 창조물이라면 그것이 크든작든 철저히 인민적이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소중히 깃들어있었다.

선별공의 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네번째로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날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제품창고를 나서시여 감자가루생산현장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설비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현장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감자선별대앞에서 선별공들이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한없는 기쁨속에 바라보시는것이였다. 이윽고 선별공에게 다가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자가 낮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낮지 않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다시 앉아보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를 두고 그처럼 기뻐하시는 사연을 잘 아는 그들이였기때문이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전에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까지만 하여도 감자선별대앞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긴 그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격정을 끼쳐드릴줄이야 …

그날 공장의 여러 공정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자선별공정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무엇때문일가?)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는 일군들을 뒤에 두고 선별대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별공에게 힘들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힘들지 않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왜 힘들지 않겠는가, 8 시간을 서서 일하자니 힘들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제서야 일군들은 영문을 깨달았다. 선별공정에서 로동자들이 서서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시였으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신것이랴.

참으로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사실 그때까지 많은 일군들이 공장을 다녀갔어도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한 선별공들의 서서 일하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은 그 모습을 스쳐보내지 않으신것이다.

번쩍이는 설비나 쏟아지는 제품에 앞서 그이의 눈길은 로동자들의 모습을 더듬고계시였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신것이다.

로동자들은 격정에 흐느끼였다. 일군들의 자책감도 컸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선별대앞에는 의자들이 놓여지고 선별공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해에 보시였던 바로 그 광경을 잊지 않으시고 이날 또다시 선별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로동자들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도 기쁘게 바라보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모두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밀물쳤다.

일군들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높뛰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선별공정을 뒤돌아보시며 로동자들이 앉아 일하는것이 아주 멋있다고 다시금 기쁨속에 뇌이시였다.

수수한 선별공의 의자였다. 하지만 거기에 어린 사연은 정녕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조선인민모두를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를 평범한 선별공의 의자도 가슴후덥게 전하고있는것이다.

스쳐지나지 않으신 유리벽의 표식

주체 101(2012)년 5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경종합식당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이곳 식당의 2 층에 꾸려진 짜장집을 돌아보시고 2 층홀로 나오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식사실과 2 층홀사이를 막은 맑은 통유리에는 흰종이로 만든 《×》표식이 붙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2 층홀과 짜장집사이의 벽과 출입문에 맑은 통유리를 끼우고 흰 띠로 곱하기표식을 해놓았는데 유리에 단순하게 그런 표식을 해놓지 말고 꽃무늬장식같은것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유리벽에 모래분사기로 흰 띠를 장식하든가 아니면 꽃무늬같은 장식을 하여 보기에도 좋으면서 사람들이 홀과 짜장집사이에 막아놓은 유리벽을 인차 알아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식당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도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이날 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제일 중요한것

주체 108(2019)년 5월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도의 강계시와 만포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기난방과 지열난방,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배합하여 건물들의 난방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주민 1인당 하루물공급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수원지들의 물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문제와 하부망공사를 과학적으로 하고 오수정화시설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산업페수와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처리할데 대한 문제 등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강계시와 만포시를 훌륭히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도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민들의 편의보장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제일 중요한것은 인민들의 편의보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탁구판이 옮겨진 사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보고 대하시여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모든 사색과 실천활동을 여기에 지향시켜나가시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적풍모이다.

주체 103(2014)년 10 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휴양소의 종합봉사건물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 층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거기에는 탁구판과 유희기재들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종합봉사건물 2 층홀에 탁구판을 놓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2 층홀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였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단관통홀을 가리키시며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이 1 층으로 굴러떨어지면 누가 주어오는가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이름 못할 격정이 북받쳐올랐다.

과학자들에게 안겨줄 훌륭한 휴양소를 일떠세워주시고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처럼 세심히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후덥게 미쳐왔던것이다.

1 층으로 떨어질수 있는 탁구공, 알고보면 너무도 자명하고 단순한 리치였지만 과연 그 누가 이에 대해 생각해본적 있었던가.

인민의 자세와 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시며 그렇듯 사소한 문제까지도 바로잡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후 탁구판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옮겨진 탁구판, 오늘도 그날의 감동깊은 이야기는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늘 강조하시는대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자면 언제나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는 철리를.

새로 생긴 륜환식통로

언제인가 중앙동물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파충관을 돌아보시던 때의 일이다.

참관로정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 누구에게라없이 참관통로가 별나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파충관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통로로 되여있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갔던 길로 되돌아나오게 되여있었다.

파충류의 생육조건보장으로 내부까지 전반적으로 어둑컴컴하니 반대벽면의 동물들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오다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생기군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관자들은 유쾌한 웃음으로 지나치군 하였기때문에 누구나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파충관의 참관통로가 굴을 조금 뚫다가 만것처럼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나오게 되여있는데 통로는 륜환식으로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방도에 대해서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파충관에서 일어나던 《교통사고》는 없어지게 되였다.

이 일과 더불어 일군들은 가슴속에 깊이 새기였다. 인민들이 설사 불편을 호소하지 않아도 제때에 대책을 세우는것이 참된 복무자의 자세이라는것을.

뜻깊은 명령

언제인가 압록강연안의 어느한 지구에 례년에 없는 큰물이 났을 때였다.

지금껏 본적이 없는 커다란 자연재해였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며 동시에 제방공사도 억년피해를 모르게 단숨에 해제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인민군군인들은 사품치는 큰물과 폭우속에서 결사전을 벌려 생사기로에 놓여있던 수많은 인민들을 무사히 구원하고 곧 제방공사에 달라붙었다.

제방공사장은 그야말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공사에 진입한 부대지휘관들도 군인들과 함께 억수로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마대를 메고 달리고 또 달렸다.

밤낮이 따로 없는 이 결사전은 그곳 인민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마침내 제방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였다.

도에서는 인민들의 지성을 담아 군인들에게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른아침 공사에 동원되였던 부대지휘관들이 도의 책임일군을 찾아와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고 하면서 새벽에 부대전원이 철수하였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책임일군은 그만 아연해졌다. 잠시후 그는 벌컥 화를 내였다.

그런 법이 어데 있는가. 인민들이 지금 군인동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민들의 성의를 받아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

책임일군의 진정어린 말에 부대지휘관들은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들려주었다.

전날 밤 이에 대해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의 성

의는 고맙지만 우리 군대는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시였던것이다.

책임일군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이 사연을 전해들은 인민들도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걷잡지 못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인민을 위해 내리신 철수명령,

정녕 이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열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것이였다.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사랑속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은 언제나 최우선, 절대시되고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꽃펴나고있는것이다.

새로 표기된 자호와 문수

인민의 편의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하나의 제품을 보시면서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사람들의 심정까지 헤아려주시는분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였을 때 있은 일이다.

이날 공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운동신발곽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운동신발곽을 자세히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운동신발곽에 자호와 문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수가 39 문인 운동신발을 포장한 곽에는 반드시 자호와 함께 39 문이라는 문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게 하여야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문수의 신발을 곽에 표기한 문수를 보고 인차 찾을수 있다고 일

깨워주시고나서 공장일군에게 꼭 자호를 표기해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운동신발곽에는 자호와 함께 문수가 새롭게 표기되게 되였다.

운동신발곽에 새로 표기된 자호와 문수,

진정 그것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인민위한 사색과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새기신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일화였다.

중요하게 강조하신 봉사망형성문제

언제인가 몸소 비행기를 타시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정형을 료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다음날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현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위치가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 경치좋은 대동강반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서면 창전거리와 대칭되여 평양시의 면모가 한결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미래과학자거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은 봉사망형성을 잘할데 대한 문제였다.

한 일군으로부터 미래과학자거리의 봉사망형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어디까지나 주택지구이므로 리발소, 미용원, 세탁소, 옷수리소, 구두수리소같은 편의봉사시설들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택지구에는 목욕탕과 약국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마디마디 일군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시였으면 이렇듯

봉사망형성문제에 대해서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랴.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지휘부와 해당 부문에서 미래과학자거리 봉사망배치계획을 검토해보고 바로잡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런 숭고한 뜻에 받들려 미래과학자거리는 볼수록 황홀한 거리, 각종 봉사망들과 편의시설들, 휴식터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멋쟁이거리로 일떠서게 되였다.

【부록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하여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 …

【부록 8】

조선식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인민에 대한 관점, 인민의 리익에 대한 태도는 해당 사회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가르는 척도로 된다.

오늘 조선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보장이 모든 사업의 기초,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끝까지 현실로 펼쳐놓는것이 조선식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조선이 나라의 방위력을 최강의것으로 다지는것도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억척같이 수호하기 위해서이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것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이다. 억만금의 재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지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가 추호도 허용되지 않는 조선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간곡한 당부

친필에 어린 당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주신 친필서한에서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군이 될데 대하여 깊이 새겨주시였다.

어느 뜻깊은 광명성절날이였다.

그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만포시인민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주신 소식이 실려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문제, 애로들을 세심히 보살펴주고 제때에 풀어주며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을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길이길이 꽃피워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라는 당부를 담으신 친필의 구절구절에는 참으로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한 친필을 평양산원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써주시였고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의 편지에도 큼직하게 새겨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도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라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필을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자한자 뜻을 담아, 진정을 담아 적어보내신 친필은 일군들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제일의무로 간직하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일군들속에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대로 중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여가게 되였다.

진정을 바치라

주체 102(2013)년 1 월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 4 차 세포비서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품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세포비서들이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자식을 위해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에게 진정을 바치라!

정녕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아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주는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정깊은 목소리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누구나 로동당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못산다고 그리도 절절히 마음속진정을 터놓는다.

군의 안주인

오늘도 조선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조선로동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 1 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울리고있다.

군당위원회가 인민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 속이야기를 터놓을수 있는 곳,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가 되여야 하며 책임비서들이 군의 안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뜻깊은 그 말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조선인민은 크나큰 격정과 감격으로 가슴설레였다.

시, 군당책임비서들이 인민들의 생활상고충을 해결하는 사업을 최우선시하며 한사람을 만나도 친부모,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그들의 눈빛과 표정, 평범한 말에서도 속마음을 읽고 대책을 세울줄 아는 참다운 당일군이 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군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은 군의 안주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날의 말씀에는 모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가는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간곡한 당부가 어려있다.

당일군의 목소리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탕직장을 돌아보실때의 일이다.

공장 초급당위원장(당시)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직장현관에 모셔진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게 되였다.

깊은 감회속에 주체 98(2009)년 12 월 11 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오시였던 그날을 돌이켜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잘 모시였다고 치하해주시고 생산현장으로 향하시였다. 그런데 대여섯자욱을 옮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초급당위원장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그리시고는 웃으시면서 공장 초급

당위원장이 목이 쉬였구만라고 하시며 원래부터 그런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당황한 그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였다. 얼결에 대답은 하였지만 그는 벌써 몇년째 습관되여 이제는 본인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쉰 목소리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헤아려주시니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공장의 현대화문제로 중앙의 많은 일군들이 다녀갔지만 초급당위원장의 목이 쉰데 대하여 주의를 돌리는 일군은 없지 않았던가.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당위원장들의 목소리를 중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가 하는 생각으로 숨소리마저 가다듬었다.

그들의 의문을 풀어주시려는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위원장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추켜세우고 종업원들의 후방사업을 하느라고 목이 쉬는것은 좋게 볼수 있지만 폭군처럼 행세하고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아래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를 치다가 목이 쉬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을 받아안으며 초급당위원장은 지난 기간의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사람들이 웅글면서도 부드러워 귀맛이 좋다고 하던 그의 목소리가 쉬게 된것은 몇년전부터였다. 공장현대화전투로 밤을 밝히며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나날에 쉰 목소리는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나을줄 몰랐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인민관이라고 하시며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하신 인민적풍모의 귀감을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대로 내 진정 일해왔던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일만 일이라 하면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얼마나 뼈심을 들였던가. 현대화공사를 하면서 아래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인적은 없었던가.

동행한 모든 일군들의 생각도 같은 곬으로 흘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은 한 당일군의 목소리를 두고서도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사업작풍상편향을 경계해주시면서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관점과 품성을 지니고 밝은 인상과 정다운 목소리로 로동자들을 대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뛰고 또 뛰여야 함을 웃음속에 강조하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초급당위원장이 공장개건사업을 지휘하느라고 목이 쉰것 같다고 따뜻한 정과 믿음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초급당위원장은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쏟아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경건히 우러렀다.

공장의 현대화를 위해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고 오늘은 또 이렇게 궂은비를 맞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안겨주시면서도 오히려 공장의 성과속에 깃들어있는 당일군의 적은 수고마저 헤아려주시는 위대하고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

그럴수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일군의 목소리를 왜 그리도 중시하시는지 그 숭고한 뜻이 가슴뿌듯하게 안겨왔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남기신 이 이야기는 공장 초급당위원장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당일군들에게 자기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허심하게 돌이켜보면서 한생토록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새겨주었다.

창성각에 울린 박수소리

주체102(2013)년 6월 어느날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창성각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창성각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주방에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 설비들을 보시고서는 옥류관과 청류관의 종업원들도 와보고 자기 식당들에 있는 설비들보다 낫다고 하였다는데 창성각의 주방설비들이 중앙의 식당들에 있는 설비보다 나은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고 2 층에 있는 식사실에 들어서시여서는 전골과 불고기는 누구나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먼길을 달려오시며 쌓인 피로도 다 잊으신듯 그리도 기뻐하시는 그이를 우러를수록 책임자의 가슴은 크나큰 행복감으로 한껏 높뛰였다.

하지만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에 한가지 아쉬움이 서리고있었음을 그는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1 층에 있는 식사실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는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며 지금 식사실들이 비여있는데 인민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에 왔더라면 더 좋았을걸 아쉽게 되였다고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순간 수행한 일군들도, 책임자도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산골군인민들에게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급양봉사기지를 마련해주시고도 그것을 리용하며 좋아하는 인민들을 만나보지 못하는 서운함을 터놓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 즐거운 웃음소리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량없는 사랑이 그 말씀에 그대로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군당책임일군이 창성각에서 군안의 주민들에게 생일상과 결혼상을 차려준것을 사진으로 남겨놓았다는데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다리신듯 그럼 어서 보자고 하시며 못내 반가와하시였다.

이어 책임자가 펼쳐드린 사진첩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

광에 인민들의 밝은 모습이 정깊게 안겨들었다. 전쟁로병부부와 세쌍둥이가 생일상을 받아안는 사진이며 창성군으로 탄원해온 교원부부의 결혼사진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좋은 사진들이 많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부부의 여든번째 생일에 초청되여온 로병들이 모두 좋아하였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였고 인민군대후방가족속에 있는 군당책임일군을 알아보시고는 대뜸 반색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진첩을 다 보아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싶은 생각에 책임자는 창성각에서 식사한 군인민들이 좋은 글을 많이 남겼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이께서는 책임자의 제기를 쾌히 수락하시며 어서 읽어보라고 따뜻이 이르시였다.

하여 그는 전해 국제로인의 날에 창성각에서 봉사를 받은 한 로인이 쓴 감상문을 펼쳐들었다.

호기심어린 눈길들이 책임자에게 모아지는데 그의 입에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것이 아닌가.

《하늘에서 내렸나, 땅속에서 솟았나. 우리 창성땅에 창성각이 웬 말이냐.
옥류관은 알아도 창성각은 몰랐구나.…》

로인이 남긴 글은 감상문이라기보다 즉흥시에 더 가까왔다. 소박하기 그지없는 감상문을 들을수록 일군들은 흥그러워지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책임자가 감상문을 다 읽고났을 때 참으로 가슴뜨거운 광경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박수를 쳐주시는것이 아닌가.

한순간 놀라움에 싸였던 수행일군들도 그이를 따라 박수를 쳤다.

뜻밖의 요란한 박수갈채에 책임자는 너무도 당황하고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일군들의 사업에 대한 제일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의 목소리라고 하시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사업의 기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수행일군들과 책임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범한 로인의 감상문에 어째서 박수까지 쳐주시였는지 다소나마 깨달을수 있었다.

거기에는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었다.

산골군에서도 로동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인민의 참된 봉사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정이 실려있었다.

창성각에 울린 박수소리,

정녕 그것은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세상에 전하여주는 메아리였고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것을 바라시는 간곡한 당부였다.

기념사진에 담으신 뜻

지금도 조선의 북변 삼지연시에 가면 그곳 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한상의 뜻깊은 기념사진을 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언제인가 삼지연군(당시)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군당위원회일군들에게 기념사진을 찍은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삼지연군당위원회 일군들이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누구보다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충복이 될데 대한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감격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동무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장군님처럼 생각하고 받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합격도장》의 주인

주체 103(2014)년 10 월 21 일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연풍과학자휴양소를 찾으시였다.

푸른 물 출렁이는 호수를 배경으로 울창한 수림속에 특색있게 건설된 휴양소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풍치수려한 연풍호기슭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휴양소가 일떠선것이 못내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휴양소운영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휴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치료실, 리발실, 미용실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있는 홀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일군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휴양소가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였다.

미소속에 하시는 말씀이였으나 저으기 걱정이 실려있었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휴양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종일관 그려보신것은 다름아닌 과학자들의 모습이였다.

자신께서는 일년내내 과학자들을 생각한다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 황홀한 휴양소를 일떠세워주시고도 아직 부족하신듯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끝없는 사랑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은정깊은 걱정은 계속되였다.

실내물놀이장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합격될것 같은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일군은 정말 과분하다고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긍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야외물놀이장과 다용도야외운동장, 휴양각 등을 련이어 돌아보시면서 꾸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신 후에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환히 웃으시면서 이만하면 과학자들에게 합격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국가지도자가 과학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설주, 시공주가 되여 일떠세운적이 있으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그것을 리용할 과학자들을 《합격도장》의 주인으로 내세운적이 있었던가.

정녕 쿵- 하고 산천에 메아리치는듯싶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들려주신 《도장》으로 과학자, 기술자들이 감격의 눈물속에 《합격》이라고 찍는 소리가!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천만로고를 바쳐 고귀한 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 인민은 그 창조물들에 《합격도장》을 찍는 이런 격동적인 화폭, 희한한 이야기는 사회주의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놓아지고있다.

한 관리원에게 하신 당부

주체 101(2012)년 10월 어느날 새로 개건보수된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선총사격관도 돌아보시였다.

이곳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광선총사격관을 멋있게 꾸렸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이때 광선총사격관 관리원이 그이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지난 5 월에 왔을 때 있던 동무인가고 하시면서 반가운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렇다고 대답을 올리는 관리원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높뛰였다.

사실 몇달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였던 그때 그이께 낡은 오락기재들을 보여드리게 된것으로 하여 기쁨보다도 죄스러움이 먼저 앞섰던 그였다. 그후 현대적인 새 오락설비들로 오락관이 다시 꾸려지자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찾아오시면 반드시 기쁨을 드리리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였다.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관리원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관리원에게 하신 당부!

정녕 그것은 온 나라 봉사자들만이 아닌 우리의 전체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나가길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담긴 간곡한 당부였다.

사연깊은 철사다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야강 2 호발전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출렁이는 물결을 품어안고 거연히 서있는 언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갈수기에도 발전소저수지에 많은 물이 차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군에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해놓고서도 발전기가 부족하여 1 호발전기밖에 돌리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가 도와주자고 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발전기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대번에 헤아리시고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감격에 겨워있는 군당책임일군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금 언제쪽에 시선을 얹으시며 저기로 올라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시다가 조정지순회점검다리로 올라가는 곳에 설치된 철사다리를 띄여보시고 저쪽으로 올라가자고 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군당책임일군의 심정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 철사다리는 발전소 근무성원들이 언제와 수문의 상태, 수위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할 때 리용하는것이였는데 경사가 매우 급하고 협소하기 그지없었다. 지금껏 많은 일군들이 발전소에 와보았지만 과연 그 누가 철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보았던가.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그리로 오르시겠다니 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으랴.

일군들모두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써 철사다리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한 일군이 위험하다고 간절히 아뢰였다.

철사다리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의 걱정을 누잦혀주시려는듯 사다리를 몇번 당겨보시고는 더 만류할 사이도 없이 거기에 올라서시였다.

한계단 또 한계단 …

옥죄여드는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던 일군들이 뒤이어 철사다리를 타고 올랐을 때 그이께서는 벌써 조정지순회점검다리의 한가운데 서시여 주변의 전경을 부감하고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수량이 괜찮다고, 물이 언제나 차있으니

전기를 생산하는것은 물론 그 물로 음료수도 보장하고 농사도 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당책임일군에게 군안의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의 자랑에 겨운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제서야 뭇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여기에까지 굳이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푸르른 물결에 비낀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안아보고싶으시여,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줄 전기강, 보배강의 출렁임소리를 듣고싶으시여 위험한 철사다리도 서슴없이 타고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철사다리,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신의 수범으로 일군들을 이끌어 세워주신 복무의 좌표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한 길도 선뜻 택할줄 아는 일군, 바로 그 길에서 인민생활의 밑바닥까지 헤아려보고 인민의 웃음꽃을 더 활짝 피워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는 절세위인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안은 력사의 증견자였다.

【부록 9】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인민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과학적인 원리를 밝혀준다는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다.

【부록 10】

인민적시책

인민적시책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책이다.

시책은 해당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축도이다. 어떤 시책을 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사회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결정되게 된다.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시책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며 그들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인민적시책이다.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하고 배우며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 치료받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책들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워지고 철저히 실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조선에서 실시되고있는 모든 인민적시책들은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시려

아쉬움을 남긴 사진첩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지구에 자리잡은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수 있겠는가를 두고 고심하던 사업소의 일군들은 그이께 자기들이 만든 사진첩을 보여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집은 당의 품》이라는 표제를 단 사진첩을 한장한장 번지시였다.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사업소에 대한 자랑과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첩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 순간이나마 기쁨을 드리였다는 긍지로 무한한 행복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때였다.

원아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마지막까지 다 보아주신 그이께서 원아들이 물고기를 먹는 모습을 찍었으면 더 좋았을것같다고 못내 아쉬워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사진첩이 남긴 아쉬움,

바로 그것은 온 나라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느끼실수 있는 불보다 더 뜨거운 진정이 아니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왕들을 위한 특별연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애육원 원아들을 찾으시였던 다음날인 주체 103(2014)년 6월 2일 아침이였다.

애육원마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줄연줄 들어섰다.

애육원의 종업원들은 무슨 일일가 하고 눈이 휘둥그래졌다. 뒤미처 갖가지 음식들을 실은 여러대의 자동차들이 줄줄이 애육원마당이 비좁도록 들어와 멈추어섰다.

아직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있는 평양애육원 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이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애육원에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원장도 종업원들도 놀라움과 격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예고도 없이 조용히 평양애육원의 마당에 들어서신것은 행복넘친 국제아동절의 하루해가 저물어가던 저녁무렵이였다.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애육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내가 아이들의 명절날에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가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미소에 온 애육원이 눈부시게 밝아졌다.

허물없이 철부지원아들과 어울려계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행일군들이 떠나실 시간이 되였다고 말씀드리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바쁘신 시간에 대하여서는 감감히 잊으신듯 애육원 원장에게 원아들이 저녁밥을 언제 먹는가고 다정히 물으시는것이였다.

원장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며 스스럼없이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것이였다.

6.1 절식사차림표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애육원에 료

리사들을 보내여 원아들에게 꿩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원장은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하고 사려깊은 심중에 원장도 종업원들도 눈시울을 적시며 그린듯 서있는데 그이께서 문득 동행한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는것이였다.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주시였는지 애육원의 원장과 종업원들은 모르고있었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은 원장에게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에게 특별연회를 차려주기 위해 여러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애육원에 성대한 특별연회상이 펼쳐졌다.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도, 군대의 책임일군도 식탁에 마주앉은 원아들에게 한 아이, 한 아이 사이다며 단물도 부어주고 수저도 집어주었다. 아이들도 좋아라 떠들고 일군들도 즐겁게 웃었다.

그러나 애육원의 원장과 종업원들은 소리없이 울었다.

세상에 없는 특별연회였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원아들을 위해 이런 연회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었던가.

이른새벽에 거듭 걸어오신 전화

사회주의조선에 흐르는 날과 날들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밝은 웃음을 위해 끝없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전하고있다.

주체 110(2021)년 9월 15일도 그러한 날중의 하루이다.

이날 이른새벽 평양시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였다.

다정하신 음성으로 그의 건강에 대해 물어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방금 평양시에서 시험생산한 젖가루를 풀어 맛보았는데 우유의 고유한 맛과 색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질적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였다.

순간 책임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밀물처럼 차오르는 격정에 책임일군은 눈앞이 흐려졌다.

평양시에서 젖가루생산을 위한 설비제작이 본격화된것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은 후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한달동안에 여러 차례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젖가루생산설비를 제작하였고 첫 시제품을 생산하여 당중앙에 보고드리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른새벽에 그 시제품젖가루를 친히 맛보시고 전화를 걸어오실줄 어찌 알았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에게 이미 생산한 젖가루가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식료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이 왜 그런 부족점이 나타나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평양시당위원회 집행위원들도 그 젖가루를 풀어 마셔보게 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송수화기를 놓은 책임일군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어린 자식에게 음식을 먹일 때 뜨겁지는 않는지, 간은 맞는지 제가 먼저 맛보고 먹이는것이 어머니의 마음일진대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처럼 친부모의 심정으로 시제품젖가루를 맛본적이 있었던가. 과연 언제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따를수 있겠는가.

책임일군의 귀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전원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모든 일군들이 어린이들의 친부모가 된 심정에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을 잘 먹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당의 육아정책관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절한 음성이 뜨겁게 메아리쳐왔다.

책임일군이 자신의 사업을 돌이켜보며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고있을 때 다시금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신것이였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젖가루를 풀어본 상태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젖가루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젖가루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이기 위한것이므로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것은 그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제일 좋은것이여야 한다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이 응축된 뜨거운 당부가 전류를 타고 책임일군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화를 놓으신 후 시계를 바라본 책임일군은 목이 꽉 메였다.

시계바늘은 새벽 4 시 20 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이른새벽에 거듭 걸어오신 사연깊은 전화!

정녕 그날의 전화종소리는 아이들을 위한 젖제품 하나도 조직자, 생산자, 공급자의 직분에 앞서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심정으로 정히 대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귀한 뜻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었다.

새해 첫날에 보아주신 새 교복견본

수도 평양으로부터 두메산골,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새 교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나선 모습으로 하여 조선의 거리와 마을들이 더욱 밝아지고있다.

조선인민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바라보는 새 교복, 거기에는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주체111(2022)년 1월 1일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무슨 일로 새해 첫날에 찾으실가 하는 생각을 안고 일군은 한달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로 달려갔다.

옷깃을 여미고 정중히 인사를 드리던 일군은 그만 못박힌듯 한자리에 굳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생들의 새 교복견본을 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시는것이 아닌가.

일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잠시후 일군에게 시선을 돌리신 그이께서는 반가운 기색을 지으시며 어서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주련이 걸려있는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의 새 교복견본들을 바라보시며 전국의 학생들에게 만들어 입힐 새 교복의 견본들을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로 만든 교복견본들이 다 좋은것만큼 그 견본대로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입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에게는 잊지 못할 나날이 되새겨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학생들의 새 교복도안을 창작할데 대하여 말씀하신것은 두해전인 주체109(2020)년 8월 15일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다시 만들어 입힐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도안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교복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던 어느날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사진자료들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들의 가슴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다.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을 내놓을 열의를 안고 창작에 달라붙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에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여 마음속고충도 컸던 그들이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 교복도안창작에 필요한 사진자료들까지 친히 한장한장 골라 보내주시였으니 그들의 가슴이 어찌 격정으로 설레이지 않을수 있으랴.

그렇듯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창작가들은 수많은 도안들을 손색없이 창작하여 내놓을수 있었다.

나라의 천만사로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이 보고드린 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였다.

그날은 주체 110(2021)년 8 월 28 일이였다.

새롭고 특색있는 도안이 완성되였을 때 모두가 기뻐하였지만 그를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은 걱정도 없지 않았다.

사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자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야했다. 더우기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하여 나라의 경제사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웠다.

하여 일군들은 새 교복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한 문제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고드리면서 죄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하지만 나라의 자금사정이 아무리 긴장하다고 하여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신발을 만들어 입히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에는 추호도 드팀이 없었다.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

서는 아낄것도 주저할것도 없다고,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공업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나간 일을 되새기는 일군을 정깊게 바라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다 해입히면 정말 한시름을 놓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은 목이 메여올랐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심중에는 자식들을 잘 키워 내세우고싶어 마음쓰는 조선의 천만어머니들의 시름이 꽉 차있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한가지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줄 때 마침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시름을 덜게 된 행복감으로 눈물짓는 어머니처럼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해입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정말 한시름 놓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온 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나라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부록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의 일부 조항들

《제 2 조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육아법 제 3 장에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

원사업을 잘할데 대하여서와 해마다 8 월과 9 월을 탁아소지원월간으로, 3 월과 10 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한 조항들도 규제되여있다.

【부록 12】

날로 늘어나고 보다 수정보충되고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민적시책을 담은 법들

주체 88(1999)년 3 월 4 일 어린이보육교양법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12 월 22 일 아동권리보장법 새로 채택.

주체 102(2013)년 4 월 4 일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일부 조항들 수정보충.

주체 103(2014)년 3 월 5 일 아동권리보장법 수정.

…

녀성권리보장법과 로동보호법, 교육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인 시책은 더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지고있다.

조선인민의 웨침-영원히 그 품만을 따르리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남모르게 걸으신 그 밤, 그 새벽, 그 아침들의 사연을 우리는 아직 혁명일화에 다 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어가신 인민을 위한 헌신의 려정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는 당, 어머니라 스스럼없이 찾고 부르며 전체 조선인민이 안겨드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그 이름 더욱 빛내여갈수 있게 되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날과 달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성격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조선인민이 로동당을 어머니로 굳게 믿고 온갖 난관을 헤쳐온 잊지 못할 력사의 나날이였다.

조선로동당을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의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끝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위대한 조선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하시였다.

얼마나 눈물겹고 가슴을 치는 멸사복무의 숭고한 세계인가.

하기에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에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고있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있는 조선로동당, 인민이 겪는 고충과 불행을 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깨끗이 가셔주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진정한 어머니당!

이것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삼가 드리는 고귀한 칭호이다.

하기에 당중앙위원회청사에 휘날리는 붉은 당기발을 우러르며 조선인

민은 오늘도 누구나 한목소리로 웨치고있다.

영원히 그 품만을 따르리라.

열백번 다시 태여난다 해도 그 품에서만 살리라.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어머니, 조선로동당의 품에서!